

인터넷 패션 쇼핑몰의 여성복 사이즈 실태조사

- 정장 재킷을 중심으로 -

서 추 언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섬유학부 교수

바쁜 현대사회의 생활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on-line 쇼핑을 통하여 시간절약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품의 품질 및 가격 비교 등을 통하여, 보다 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쇼핑몰의 시장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류제품의 경우는 일반 공산품에 비하여 구매정도가 낮으며, 그 원인으로는 의복사이즈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맞춤새가 중요시 되고 있는 여성정장 의류 중 테일러드 재킷을 중심으로 의복사이즈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사이즈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현재 소비자들이 비교적 선호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중 d & shop, 인터파크, 옥션, H-mall 등에 입점해 있는 의류 브랜드 중 정장재킷의 아이템과 의복의 사이즈 표시가 2개 호칭이상 제시된 42개 업체를 무작위 선정하였으며, 재킷의 디자인은 가장 기본형인 테일러드 재킷으로 하였다.

인터넷 쇼핑몰의 여성 정장 재킷의 사이즈 실태를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칭을 살펴보면 42개 업체 중 KS K 0051(1999)에서 규정한 호칭법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한 업체도 없었으며, 55호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전체의 약 81%로 34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에서 제시된 의복사이즈는 인체사이즈가 아닌 제품사이즈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시하고 있는 의복의 계측항목도 2항목에서 10항목까지 각기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호칭 55사이즈의 평균제품치수는 가슴둘레 85cm, 어깨너비 36.16cm, 소매길이 59.75cm, 소매둘레(윗팔부위) 30.13cm, 허리둘레 75.9cm 등으로 조사되었다. 업체에서 인체의 치수가 아닌 제품의 치수를 제시하는 이유는 소비자로 하여금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의복과 비교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의복계측부위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요구된다. 또한 소비자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세부적인 제품사이즈와 함께 인체 사이즈도 함께 제시한다면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제품의 사이즈를 알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의복구매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사료된다.